

병원 간호사의 자아개념이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수정¹

건양대학교 간호학과¹

Effects of Self Concept on Clinical Competency in Hospital Nurses

Han, Su Jeong¹

¹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self 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es in hospital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ncepts. **Methods:** A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which was done from July 1 to July 30 in 2005. The respondents were 267 staff nurses in a university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s in two cities. The instruments were Son's(2002) self concept scale and Lee's(2002) clinical competency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otal mean score of self concept was 2.56, and clinical competency was 2.59 on a 4 point scale. Second, the self 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hir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self concept explained 45.2% of clinical competency. **Conclusion:** Self concept has a strong influence on clinical competency. Therefore, individualized nursing management strategies and education programs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increase a nurses self concept.

Key Words : Nurse, Self-concept, Clinical competenc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학 분야에서는 자아개념의 향상 그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업성취와 같은 다른 교육적 결과를 예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인성변인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자아개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Choi & Yoo, 1998). 간호학에서도 자아개념을 많은 이론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요소로 보

고 있다(Kim & Nho, 1999).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복합적이며 역동적인 제 신념체계이다(Kim et al., 1999). 즉, 자기 자신을 보는 방법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총체적인 인식이다.

자아개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동안의 문제에 반응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응력이 좋으며, 능동적이고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이루는 반면, 부정적

Corresponding address: Han, Su Jeong,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368 Kasuwon-dong, Seo-gu, Daejeon 312-718, Korea.
Tel: 82-42-600-6344, Fax: 82-42-545-5326, E-mail: sjhan@konyang.ac.kr

투고일 2006년 11월 16일 심사외뢰일 2006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23일

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응이 어렵고 열등감, 불확신감을 가지며, 자존심이 없어 목표설정이 낮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하였다(Choi, 1981). 또한 Arthur(1990)는 자아개념이 높고 긍정적인 간호사는 자존감 및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향상되어 간호전문직에 발전을 가져오는데 반해, 자아개념이 낮고 부정적인 간호사는 간호생산성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그 어느 때 보다 의료환경의 변화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전문직으로 구성된 병원의 인력 구성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인력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의 실무능력이란 간호 역할의 전체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즉, 다양한 실무 환경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얻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enner, 1982). Jang(2000)은 실무능력을 과학적, 윤리적, 인격적, 심미적 실무능력군으로 나누고 각 임상등급별로 13개 실무능력의 수준을 가리키는 행동지표를 종합하여 간호사의 경력시기별로 발휘해야 하는 바람직한 기대수준을 제시하면서 간호사들을 면담한 결과를 내용 분석하여 동일한 임상경력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실무능력 수준이 동일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그 중 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Lee(2002)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실무능력을 24.4% 설명한다고 하였고, 수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에 대해서 Lee(2003)의 연구는 자아개념이 실무능력에 33.2%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간호사의 자아개념과 직무만족 및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논문은 몇 편 있으나 자아개념을 다면적 개념으로 접근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James(1890)가 자아의 성분을 감각적, 개념적, 태도 및 감정적 그리고 인식적인 것으로 분석한 이래(Park, 1996에서 재인용), Shong(1989)은 자아개념의 모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위계요인 모형이 자아개념의 내적 구조를 설명하는 타당한 모형이라고 하면서, 자아는 일반적 자아 이상의 많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자아개념의 구조는 인간이 경험하는 내용, 이 경험 내용을 받아들여 적용하는 정신작용, 그리고 이들 정신작용의 내용이 작용하여 나타내는 결과차원의 3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호사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간호사의 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Shong(1989)이 제시한 다면적 자아개념을 성취자아, 사회자아, 정서자아, 일반자아별로 구분하여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신입간호사의 채용, 간호사의 경력개발 및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자아개념이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병원 간호사의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병원 간호사의 자아개념과 실무능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병원 간호사의 자아개념이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자아개념이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 부속병원과 일반

종합병원 각 1개의 병원에서 근무하며 일반병동에서 직접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책임 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 267명을 임의표출 하였다. 일반병동 간호사로 제한 한 이유는 특수부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실무능력은 일반 병동 간호사와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였던 선행연구의 결과(Jang, 2000)를 따른 것이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 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6문항, 자아개념 20문항, 실무능력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아개념

Shong(1989)의 자아개념 검사를 수정·보완한 Son(200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이 중 학급자아, 가족자아와 신체자아를 제외한 일반자아, 성취자아, 사회자아, 정서자아의 4개의 하위영역만을 선택하여 구성 하였다. 각 항목별로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되어있다. 일반자아는 자아개념의 모형에서 하위영역들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특성이며, 성취자아개념은 실제 업무수행의 성취에 관련된 지각이고, 사회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된 지각을 의미한다. 정서자아개념은 정의적 반응성, 이상성, 도덕성, 성격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on(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일반자아 .69, 성취자아 .82, 사회자아 .75, 정서자아 .6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4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일반자아 .64, 성취자아 .72, 사회자아 .75, 정서자아 .79이었다.

2) 간호실무능력

Jang(2000)이 개발한 간호사의 임상경력 개발모형에서의 4단계 임상등급에 따른 13개의 실무능력에 대한

행동지표를 Lee(200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수정하였다. Lee(2002)의 63문항 중Jang(2000)이 도구 개발 당시에 제시하였던 간호연구와 질 향상에 참여의 2문항을 전문성 개발력에 첨가하여 총 65문항으로 도구를 구성 하였다. 전문성 개발력 8문항, 자원관리 능력 4문항, 병동 업무처리능력 4문항, 윤리적 가치지향성 4문항, 협력 4문항,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 능력 5문항, 유연성 5문항, 환자이해 능력 4문항, 환자 지향성 6문항, 임상적 판단과 대처 능력 4문항, 영향력 5문항, 타인육성 능력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3개의 실무능력 중 전문성 개발력, 자원관리 능력, 병동 업무 처리능력은 과학적 실무능력군으로 윤리적 가치지향성과 협력은 윤리적 실무능력군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능력, 유연성은 인격적 실무능력군으로 환자이해 능력, 환자 지향성, 임상적 판단과 대처 능력, 영향력과 타인육성 능력은 심미적 실무능력군으로 분류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언제나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문항에 대한 점수를 역으로 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실무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2002)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값이 .95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간호실무능력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51 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과학적 실무능력 .85, 윤리적 실무능력 .83, 인격적 실무능력 .84 그리고 심미적 실무능력 .90이었다.

4.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5년 7월중에 실시되었으며, 지방에 소재한 대학 부속병원과 일반종합병원의 간호부장을 면담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허락을 받았다. 총 300부의 배포 설문 가운데 27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91.6%를 보였다. 분석에 사용하기 곤란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한 총 267부의 설문지가 실제 분석에 활용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실무능력 정도는 ANOVA를 사용하였다.
- 3) 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25.6세이며, 미혼이 229명(85.8%)이었으며, 전문대졸이 136명(50.9%), 대졸이 117명(43.8%)이었고, 대학원이상은 14명(5.2%)이었다. 간호사 경력은 5년 미만인 184명(68.9%)으로 제일 많았으며, 5년에서 10년 미만이 71명(26.6%)으로 나타났다. 프리셉터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104명(39%)이었으며, 경험이 없는 간호사는 163명(61%)이었다. 직무만족은 '보통이다'가 131명(49.1%)로 제일 많았으며, '만족한다'가 93명(34.8%)

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2. 대상자의 자아개념과 실무능력

간호사의 자아개념은 최대 평점 4점 중 평균 2.5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자아 2.64점, 정서자아 2.75점, 성취자아 2.48점, 그리고 사회자아 2.5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한편, 간호사의 실무능력은 최대 평점 4점 중 평균 2.5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보면 과학적 실무능력 2.38점, 윤리적 실무능력 3.06점, 인격적 실무능력 2.56점, 심미적 실무능력 2.61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실무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개념은 결혼 상태($t=-2.98, p=.003$), 프리셉터 경험($t=2.16, p=.031$)과 직무만족($F=13.582,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혼자와 프리셉터 경험이 있는 간호사, 그리고 직무만족이 높은 간호사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무능력의 차이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Age(yrs)				25.64(3.05)
Marital status	Unmarried	229	(85.8)	
	Married	38	(14.2)	
Educational level	College	136	(50.9)	
	University	117	(43.8)	
	Graduate	14	(5.2)	
Preceptor experience	Yes	104	(39.0)	
	No	163	(61.0)	
Nurse Career(yrs)	Below 5	184	(68.9)	
	5-10	71	(26.6)	42.8(35.8)
	Above 10	9	(3.4)	(month)
	No response	3	(1.1)	
Job satisfaction	Not satisfied	41	(16.1)	
	Moderate satisfied	131	(49.1)	
	Satisfied	93	(34.8)	

Table 2. Self 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y (N=267)

Variables	Domains	M	(SD)
Self concept	General self	2.46	(.409)
	Emotional self	2.75	(.354)
	Achievement self	2.48	(.451)
	Social self	2.59	(.464)
	Total	2.56	(.321)
Clinical competency	Scientific competency	2.38	(.393)
	Professional development power	2.36	(.447)
	Resources management	2.29	(.470)
	Processing ability of ward works	2.50	(.462)
	Ethic competency	3.06	(.385)
	Inclination toward ethical value	3.38	(.487)
	Cooperation	2.73	(.479)
	Personal competency	2.56	(.337)
	Self confidence	2.55	(.371)
	Self control	2.60	(.429)
	Flexibility	2.54	(.387)
	Esthetic competency	2.61	(.387)
	Understanding patients	2.71	(.496)
	Patient service orientation	2.66	(.536)
	Clinical judgement and measures	2.67	(.469)
Influencing power	2.49	(.391)	
Developing others	2.54	(.518)	
Total	2.59	(.310)	

Table 3. Self 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M	(SD)	Self concept		Clinical competency	
				M(SD)	t/F(p)	M(SD)	t/F(p)
Marital status	Unmarried	229	(85.8)	2.54(.32)	-2.98(.003)	2.62(.30)	-3.58(.000)
	Married	38	(14.2)	2.71(.27)		2.82(.26)	
Educational level	College	136	(50.9)	2.55(.34)	.379(.685)	2.63(.32)	.748(.475)
	University	117	(43.8)	2.57(.29)		2.68(.29)	
	Graduate	14	(5.2)	2.62(.24)		2.67(.26)	
Preceptor experience	Yes	104	(39.0)	2.62(.30)	2.16(.031)	2.72(.27)	3.07(.002)
	No	163	(61.0)	2.53(.32)		2.61(.32)	
Nurse career(yrs)	Below 5	184	(68.9)	2.58(.31)	2.29(.103)	2.64(.31)	3.38(.036)
	5-10	71	(26.6)	2.52(.34)		2.66(.29)	
	Above 10	9	(3.4)	2.75(.15)		2.93(.25)	
	No response	3	(1.1)	-			
Work satisfaction	Not satisfied	41	(16.1)	2.42(.35)	13.582(.000)	2.57(.31)	6.687(.001)
	Moderate satisfied	131	(49.1)	2.52(.29)		2.61(.29)	
	Satisfied	93	(34.8)	2.69(.30)		2.74(.31)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 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y

(N=267)

Variable	Clinical C. ¹⁾	Scientific C. ¹⁾	Ethic C. ¹⁾	Personal C. ¹⁾	Esthetic C. ¹⁾	Self concept	General self	Emotional self	Achievement self	Social self
Clinical C. ¹⁾	1.00									
Scientific C. ¹⁾	.800* (.000)	1.000								
Ethic C. ¹⁾	.754* (.000)	.389* (.000)	1.000							
Personal C. ¹⁾	.856* (.000)	.572* (.000)	.537* (.000)	1.000						
Esthetic C. ¹⁾	.896* (.000)	.659* (.000)	.543* (.000)	.756* (.000)	1.000					
Self concept	.650* (.000)	.555* (.000)	.380* (.000)	.607* (.000)	.612* (.000)	1.000				
General self	.388* (.000)	.383* (.000)	.176* (.004)	.407* (.000)	.338* (.000)	.755* (.000)	1.000			
Emotional self	.404* (.000)	.306* (.000)	.244* (.000)	.450* (.000)	.350* (.000)	.716* (.000)	.512* (.000)	1.000		
Achievement self	.614* (.000)	.516* (.000)	.389* (.000)	.529* (.000)	.389* (.000)	.796* (.000)	.439* (.000)	.397* (.000)	1.000	
Social self	.550* (.000)	.460* (.000)	.331* (.000)	.460* (.000)	.547* (.000)	.775* (.000)	.383* (.000)	.374* (.000)	.533* (.000)	1.000

¹⁾ competency , *p<.005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of variables on the clinical competency

(N=267)

Variables	b	β	t	p	R ²
Constant	1.161		9.730	.000	
Achievement self	.277	.405	7.151	.000	.372
Social self	.188	.282	5.053	.000	.439
Emotional self	.117	.136	2.635	.009	.452

에서는 결혼상태($t=-3.58, p=.000$), 프리셉터 경험($t=3.07, p=.002$), 간호사 경력($F=3.38, p=.036$), 그리고 직무만족($F=6.68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혼자이면서 프리셉터의 경험이 있으며, 간호사 경력이 많을 때, 그리고 직무만족이 높을 때 실무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자아개념과 실무능력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개념과 실무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아개념은 실무능력과 유의

한 정의 상관관계($r=.650,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성취자아($r=.614, p=.000$), 사회자아($r=.550, p=.000$), 정서자아($r=.404, p=.000$)와 일반자아($r=.388, p=.000$) 모두 실무능력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실무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실무능력에 대한 자아개념의 영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실무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혼상태, 프리셉터 경험, 간호사 경력과 직무만

죽과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을 예측요인으로 하여 실무능력에 대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실무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한 변인은 성취자아($\beta= .405$, $p=.000$)였고, 그 다음이 사회자아($\beta=.282$, $p= .000$), 정서자아($\beta=.136$, $p=.000$) 순이었다. 즉, 성취자아, 사회자아, 정서자아가 높은 경우 실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한 전체 설명력은 45.2%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자아개념이 간호사의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아개념은 최대 평점 4점 중 2.56점이었다.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3)에서는 5점 만점에 3.18점,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002)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10점이 나타났다. Cowin과 Sims(2006)의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일반적 자아개념은 8점 만점에 6.50점을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중정도의 자아개념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자아개념의 하위개념 중 정서자아가 2.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자아(2.59점), 성취자아(2.48점), 일반자아(2.46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는 자신의 성격이나 도덕성, 이상성에 관해 지각하는 정서자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일반자아와 실제 업무수행의 성취에 관련된 지각인 성취자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은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렵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을 연구한 Son(2002)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서자아 2.84점, 일반자아 2.70점, 사회자아 2.38, 성취자아 2.01로 나타났다. Cowin과 Sims(2006)는 신규간호사가 입사한 이후에 6개월, 12개월에 지속적으로 자아개념을 측정하였더니, 6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사이에 전반적으로 돌봄 자아개념, 관계성 자아개념, 의사소통 자아개념, 지식적 자아개념이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입사 후부터 6개월까지는 현장에 대한 적응기간으로 실무와 이론의 차이에 대한 쇼크를 해결

하고 간호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면서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차원적 개념인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반복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추후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자아개념과 관련된 종단적 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실무능력은 최대 4점 만점 중 2.5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002)의 연구에서의 2.67점과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003)의 연구에서의 2.61점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실무능력이 2.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Lee(2002)과 Jang(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과학적 실무능력에서 자원관리 능력이 2.29점으로 최하위였으며, 전문성 개발력이 2.36점으로 나타나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윤리적 실무능력이 3.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하위영역인 윤리적 가치지향성은 3.38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았고, 협력도 2.7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대상자들은 실무능력이 고르게 발달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전문성 개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병동 단위의 연구와 질관리 활동 등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 그 지식과 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고 전문영역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원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용효과를 고려한 물품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은 결혼상태, 프리셉터 경험과 직무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혼자와 프리셉터 경험이 있는 간호사, 그리고 직무만족이 높은 간호사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연수교육을 받은 신입간호사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신입간호사 보다 자아개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Son(2002)의 연구, 종교, 직위, 근무경력, 선택동기, 근무예정기간, 그리고 직업만족도에 따라 자아개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Son(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무능력은 결혼상태, 프리셉터 경험, 간호사 경력과 직무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Lee(2002)의 연구에서의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현 병동 경력,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Lee(2003)의 연구에서도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기혼이 미혼에 비해 실무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미혼에 비해 연령이 많아 임상 경력이 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기혼자이면서 프리셉터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경력이 많을수록 또한 직무에 만족하는 간호사일수록 실무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실무능력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개념의 하위영역과 실무능력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순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자아개념 외에 실무능력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결혼상태, 프리셉터 경험, 간호사 경력, 그리고 직무만족을 예측요인으로 하여 실무능력에 대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이 실무능력에 대해 가장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취자아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사회자아와 정서자아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45.2%였는데, 이는 Lee(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Lee(2002)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Son(2002)의 연구결과에서 학업성적이 좋은 청소년의 경우 성취자아가 높았으며, 사회자아와 정서자아 모두 성적이 상, 중위권 학생이 하위권 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실무능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개념이 밝혀졌고, 자아개념 중 성취자아가 가장 설명력이 높고 사회자아와 정서자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간호사들의 자아개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성취자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런 전략은 간호사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면 생산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이 생기게 되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면 전문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이 저하된다는 주장(Cowin & Sims, 2006; Kin, Jung

& Han, 1996)과 자아개념이 인간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언 변인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5년 7월 중에 지방에 소재한 대학 부속 병원과 일반 종합병원 각 1개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개념이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Son(2002)의 자아개념 측정 도구와 Lee(2002)의 실무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아개념 정도는 최대 평점 4점 중 평균 2.56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보면 일반(2.46), 정서(2.75), 성취(2.48), 사회(2.59)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능력은 최대 평점 4점 중 평균 2.59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보면 과학적(2.38), 윤리적(3.06), 인격적(2.56), 심미적(2.61)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개념은 결혼($t=2.98$, $p=.003$), 프리셉터 경험($t=2.16$, $p=.031$), 직무만족($F=13.58$,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실무능력은 결혼($t=3.58$, $p=.000$), 프리셉터 경험($t=3.07$, $p=.002$), 간호사 경력($F=3.38$, $p=.036$), 직무만족($F=6.68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 대상자의 자아개념과 실무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개념은 실무능력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650$,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결혼, 프리셉터 경험, 간호사 경력, 직무만족 및 자아개념이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유의한 변인은 성취자아였으며, 사회자아, 정서자아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에 의한 총 설명력은 45.2%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사의 실무능력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개념이 규명되었으므로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간호사의 실무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 외에 조직적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간호사의 자아개념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rthur, D. (1990).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Unpublished master of educational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Sydney.

Benner, P. (1982). Form Novice to Expert, *Am J Nurs, March*, 402-407.

Chang K. S. (2000). *Study on establishment of clinical career development model of nurses*.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Choi, S. Y. & Yoo, Y. S. (1998).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J Educ Res*, 6, 209-224.

Choi, C. H. (1981). *Study on self-concept of school juvenile*

with handicap and mother's attitude of bringing and d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kyunwan University, Seoul.

Cowin, L. S. & Sims, C. H. (2006). New graduate nurse self-concept and retention: A longitudinal survey, *Int J Nurs Stud*, 43, 59-70.

Kim, C. K. & Noh, C. H. (1999). An study of the profesional self-concept and job satisfaction in RN-BSN students. *J Korean Acad Nurs Edu*, 5(2), 250-266.

Kim, K. B., Kim, N. C., Kim, B. H., Kim, S. S., Song, M. S., Shin, K. R., Lee, S. J., & Choi, K. S. (1999). *Critical Care Nursing*, Hyunmoonsa: Seoul.

Kim, S. J., Jung, K. H., & Han, Y. S. (1996).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clinical nurses in Korea. *J Nurs Sci*, 8(1). 1, 1-13.(확인요함)

Lee, M. J. (2002). *Study of factors related to clinical competency in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Lee, M. H. (2003).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eadership and competency in operating room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Park, S. J. (1996). *Influence which self-concept has 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choolwork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ng Womens University, Seoul.

Shong, I, S. (1989). *Human psychology and self-concept*. Yangseowon: Seoul.

Son, E. M. (2002).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self-esteem in Juveni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un University, Kyongkido.

Son, E. J. (1996).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ttitude of nursing prof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Son, H. A. (2002). *The effects of study and training education upon new graduate nurses self-concept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prof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